

신(新)안보딜레마와 네트워크 국제정치*

이론적 분석

민병원 | 이화여자대학교

오늘날 세계정치는 탈냉전 시대를 거쳐 네트워크 구조가 복잡하게 전개되는 21세기로 접어들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국제정치 상황에서 안보딜레마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그로부터 적절한 시사점을 도출해내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20세기의 안보딜레마 개념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특히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안보 개념이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가를 짚어보고 있다. 냉전기의 안보가 철저하게 국민국가 중심의 군사전략적 관점에서 다루어졌다면, 탈냉전기의 안보환경은 보다 다양한 행위자와 사회적 영역에 걸쳐 안보딜레마의 상황이 폭넓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냉전시대에 구축된 안보딜레마의 관념이 1990년대에 들어와 어떻게 바뀌어왔는가를 살펴보는 데, 안보대상과 영역의 확대를 ‘안보문제화’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강조한 코펜하겐학파의 안보이론은 중요한 분수령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상황에 대한 이해는 21세기의 위협과 안보 인식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형성되는 동적인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이 논문에서는 9·11 사태 이후의 복잡한 세계정세와 안보환경이 전통적인 안보딜레마 개념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복잡적이면서 비정형화된 위협과 갈등이 중요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국가 중심의 발상만으로 이러한 새로운 안보딜레마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결국 탈냉전기 안보개념의 확대를 넘어서 이 논문에서는 보다 본질적인 국제정치의 변환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선 구조적 관점에서 네트워크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양적인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32-B00014).

변화 뿐 아니라 질적인 행태의 변화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국제정치 프레임워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는 점을 논의한다. 아울러 전통적인 안보상황을 바탕으로 전개되어온 안보딜레마 개념이 보다 복잡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新)안보딜레마’의 개념을 통해 재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어 : 탈냉전, 네트워크 국제정치, 코펜하겐학과, 안보딜레마, 신(新)안보딜레마, 동맹

I. 들어가는 말

이 논문은 국제정치의 분쟁 및 갈등현상을 이해하는데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아온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의 속성이 오늘날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새로운 논의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이론적 탐구를 지향한다. 안보딜레마는 한 나라의 안보추구 행위가 상대국의 안보를 위협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 나라의 안보증강을 야기하여 결국에는 자국의 안보에 해를 끼치는 악순환의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도 주권을 지닌 국가들이 다수 존재하면서도 ‘세계정부’를 갖지 못한 국제정치의 ‘무정부상태(anarchy)’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동시에 아무리 선한 동기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국제정치의 근본적인 속성으로 말미암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비판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까닭에 ‘안보딜레마’는 국제정치의 본질적인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이론적 개념으로 자리 잡아왔다. 하지만 냉전 이후의 급변하는 세계정세는 전통적인 안보딜레마의 개념이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안보딜레마 개념

이 오늘날의 국제정치 속에서 어떻게 재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안보딜레마’라는 국제정치의 핵심개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탈냉전기에 들어와 국제정치의 구조가 상당히 변화해왔다는 지난 10~2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안보딜레마라는 이론적 개념은 지난 반세기에 걸쳐 꾸준히 사용되어 왔지만, 이것이 원래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국제정치현상을 설명하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국제정치의 구조가 크게 바뀌고 있는데, 초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양극체제가 와해되면서 안보의 대상(referents)이나 범위(scope)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 해왔다는 점, 그리고 중국이나 유럽연합, 나아가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집단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대항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전통적인 ‘안보’의 개념에도 변화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군사안보에만 치중하던 이전 시기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자원개발, 환경보호, 종족 및 사회갈등, 무역분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배가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그동안 ‘안보딜레마’로 상징되는 국제정치의 본질적 요소에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오늘날의 국제정치가 전통적인 국가 중심의 구도를 나타내는 ‘당구공(billiards ball) 모델’만으로는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우며, 구조적 관점에서 ‘네트워크’의 특성을 반영한 시각을 제시하고, 그로부터 전통적인 안보딜레마의 관념들이 어떻게 재평가될 수 있는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국제정치를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국가를 하나의 통합된 단위체로 바라보거나 그 속성을 밝혀내는데 치중하는 대신 그들 사이의 관계(links)에 초점을 두면서 국가 내부의 다양한 행위자들과 국가들 사이의 불균등 상호작용에 더 주안점을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럼으로써 복잡한 대내적·대외적 안보관계의 틀 속에서 오늘날 안보딜레마의 문제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탈냉전기에 들어와 안보딜레마라는 이론적 개념의 속성이 얼마나 바뀌고 있는가의 퍼즐에 대한 답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먼저 탈냉전기 국제정치의 모습을 복잡한 '네트워크'로 바라보고자 하며, 이러한 이론틀 속에서 기존의 안보딜레마 개념이 지닌 한계와 더불어 새로운 환경 변화를 고려한 개념적 외연 확대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또한 20세기 중·후반의 전통적인 안보딜레마와 냉전 이후의 '신(新)안보딜레마'가 어떤 방식으로 차이를 보이는가를 논의한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먼저 안보딜레마의 전통적 개념과 이론적 배경, 그리고 개념의 확대를 소개한다. 이어 제3장에서는 위의 퍼즐에 따라 네트워크 국제정치 속에서 안보딜레마의 본질적 속성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논의하고, 제4장에서는 신안보딜레마의 개념이 현실 국제정치에서 활용될 수 있는 영역과 그 의미에 대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II. 안보딜레마의 개념과 이론

1. 안보딜레마의 전통적 개념

안보딜레마에 관한 논의는 냉전 직후의 첨예한 갈등구조를 배경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선구자로 허버트 버터필드(Herbert Butterfield)와 존 헤르츠(John Herz)를 꼽을 수 있다. 냉전은 1940년대 말부터 국제정치의 구조를 경직된 형태로 바꾸면서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사이

에 반세기에 걸쳐 지속적인 긴장관계를 만들어냈다. 많은 나라들은 전쟁의 경험을 통해 생존본능을 키워나갔고, 이것이 다시 대외적으로 공격적인 행태를 낳음으로써 다른 나라들의 생존본능을 자극하는 연쇄적인 악순환이 반복되곤 했다.

버터필드와 헤르츠는 바로 이러한 무정부적 국제정치 속에서 국가들 사이에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생존’의 문제를 ‘안보딜레마’라는 개념으로 정립해냈다. 특히 버터필드는 무정부상태의 국제정치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홉스적 공포(Hobbesian fear)’를 강조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실성(uncertainty)이 안보불안을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보았다. 인간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안보불안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원죄’와도 같은 비극으로 간주되었다(Butterfield 1952).

이러한 관념이 구체적인 ‘안보딜레마’의 개념으로 수립된 것은 헤르츠에 의해서였다. 그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안보문제의 구조적 딜레마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이 개별 국가 차원에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한 20세기 초반에 여러 차례의 대규모 전쟁을 겪으면서 갈등구조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국제정치의 ‘비극적 속성(tragedy)’을 강조하였고, 그로부터 적절한 해법을 모색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생생하게 논증하였다. 1950년대부터 핵무기와 이데올로기적 대립, 그리고 양극화 구도를 기반으로 구축되어온 전략적 접근방식이 국제정치의 안보딜레마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원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이로써 분명해졌다(Herz 1950, 157-159; Hacke and Puglierin 2007, 277-278). 이때부터 안보딜레마는 20세기의 비극적 냉전구조의 한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퍼즐로 간주되기 시작했던 것이다.¹⁾

1970년대에 들어와 저비스(Robert Jervis)는 심리학적 접근방법에

기반을 둔 새로운 안보딜레마 이론을 확립하였다. 그는 냉전기의 미-소간 힘겨루기의 양상을 묘사하는 ‘억지(deterrence)모형’과 ‘상승작용(spiral) 모형’을 비교하였는데, 후자의 경우 두 행위자가 서로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가피하게 전쟁으로 치닫게 되는 안보딜레마의 구조와 동일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즉 안보딜레마를 야기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상황을 잘못 판단하는 정책결정자들의 ‘오인(misperception)’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비록 개개의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을 받는 상대방의 정책결정이 다시 이쪽의 정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심리적 한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저비스의 안보딜레마 이론은 국제정치의 갈등과 비극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나타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행위자의 자유의지 대신 구조적 한계로 말미암아 방어에 관한 욕구가 하나의 ‘딜레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거시적 환경에 대한 심리적 인식의 한계가 구조적인 안보딜레마로 이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그의 안보딜레마 개념은 국제정치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에서 야기되는 결과의 비합리적 측면을 잘 드러내고 있다. 개별 국가들이 좁은 의미의 합리성(rationality) 개념에만 치중할 경우 원래 의도했던 목표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현실주의적 비판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Jervis 1976, 54-67).

1) 헤르츠는 1940년대 말 당시 공산권에 대한 서방측의 전략이 유화(appeasement)정책이나 포기(abdication)정책이라는 한 쪽 극단과 인류문명을 파괴하는 전쟁이라는 다른 쪽 극단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Herz 1950, 180). 이러한 시각은 이후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중도적인 접근, 예를 들어 봉쇄(containment) 정책이나 관여(engagement)정책이 등장하는 초석이 되었다.

이러한 저비스의 이론은 안보딜레마가 왜 발생하는가를 체계적으로 설명해주었다는 점에서 국제정치이론에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동시에 ‘안보’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지나치게 과장됨으로써 국가들 사이의 안보 관계가 악순환에 빠져들 수 있다는 현실정책적인 함의를 담고 있었다. 이러한 진단은 적어도 반세기에 걸친 냉전기의 핵대결 상황에 잘 들어맞는 것이었다. 미국과 소련은 궁극적으로 상대방을 완전하게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방어태세를 확립했지만, 이것이 상대방을 자극함으로써 결국 자국에 대한 또 다른 위협을 불러일으키는 근원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냉전기의 전략적 대결이 오랫동안 지속 또는 확대되었다는 사실은 이런 점에서 전통적인 안보딜레마의 개념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것이었다.

2. 국가의 속성에 관한 논의와 안보딜레마

전통적인 안보딜레마의 개념이 국제정치이론에 소개되기 시작한 이래로,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안보딜레마를 야기하는 국가들의 국내정치적 속성에 대한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개념이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지기 시작했다. 우선 과거의 안보딜레마 개념에서는 분쟁당사국들이 모두 동일한 속성을 지닌다고 보았지만, 나치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특정한 국가들은 ‘안보’ 대신 ‘팽창’을 더 중시한다는 점이 고려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체제불만국가(revisionist state)’의 적대적인 의도는 상대 국가에 안보불안을 야기하며, 예방전쟁(preventive war)이나 선제공격(preemptive war)과 같이 방어논리에서 벗어난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이 체제불만국가의 의도와 행태에 대하여 새롭게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면서 국가의 유형이나 속성에 따라 안보딜레마의 속성도

바뀔 수 있다는 이론적 명제들이 등장했다.

전통 현실주의자로 분류되는 슈웰러(Randall Schweller)는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의 목적이 반드시 ‘안보추구(security-seeking)’에만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팽창을 위한 ‘권력추구(power-seeking)’의 목적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존에 월츠(Kenneth Waltz)를 중심으로 하는 신현실주의자들이 구조적 변수를 강조하면서 국가를 ‘유사단위체(like-units)’로 간주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유형화는 현실주의 이론의 분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²⁾ 슈웰러는 신현실주의자들이 국가의 방어적 ‘안보추구’ 성향만을 강조함으로써 ‘현상유지 편향성(status-quo bias)’에 빠져 있음을 비판하면서, 안보딜레마를 야기하는 주된 원인으로서 ‘권력추구’를 목표로 하는 체제불만국가들의 역할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chweller 1996, 107-108). 나아가 그는 편승행위(bandwagoning)를 일삼는 국가들조차도 단순히 안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외부로부터의 안보위협이 없어도 편승행위가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 그 주된 근거라고 할 수 있다.³⁾ 이처럼 국제정치의 복잡한 모습을 고려할 때 전통적인 안보딜레마의 개념은 매우 단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980년대 이후의 국제정치이론에서는 구조적 변수보다 국가 행위자의 속성이라는 미시적 변수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콜린스(Alan

-
- 2) 국가의 ‘유사단위체’ 성격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국가가 독립적인 행위자로서 수행하는 기능적 유사성을 중시한다는 점을 강조한다(Waltz 1979, 95-97). 이와 같은 개념은 국가가 대외적으로 팽창하려는 성향이나 국가권력 사이의 불균형현상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갖게 만든다는 점에서 신현실주의이론이 비판 받는 주된 근거가 되었다.
 - 3) 슈웰러는 특히 체제불만국가(revisionist state)의 유형을 ‘자갈’과 ‘늪대’의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목표를 제한적으로 설정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무제한적인 욕망을 지니고 있다(Schweller 1994, 100-102).

Collins)는 이러한 유형의 안보딜레마를 일컬어 ‘국가유발형(state-induced) 안보딜레마’라고 부르고 있다. 이 개념은 이전에 버터필드, 헤르츠, 저비스가 이론화했던 전통적 안보딜레마가 국제체제의 무정부적 속성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체제유발형(system-induced)’이라는 점과 대비된다(Collins 2004, 32-33). 국가유발형 안보딜레마는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한 국가가 이웃 국가들에 위협을 가함으로써 발생하는 딜레마를 일컫는다. 이러한 현상은 헤게모니 국가가 다른 나라로 하여금 안보불안을 느끼도록 할 때 발생하는데, 위협을 받는 국가의 관점에서는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안보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보딜레마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⁴⁾ 이 경우 헤게모니 국가의 의도가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님에도 상대 국가는 이를 공격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안보문제를 둘러싼 국가들 사이의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도 심리적 요소에 의해 정상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안보딜레마의 핵심적인 특성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말하자면 한 나라가 의도적으로 다른 나라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안보딜레마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이다. 이런 맥락에서 폴 로우(Paul Roe)는 오해와 실수에 의해 빚어지는 전통 안보딜레마를 ‘경직된(tight) 안보딜레마’로, 제로섬 게임처럼 한 나라의 안보추구행위가 다른 나라의 안보불안을 야기하는 경우를 ‘일반적(regular) 안보딜레마’로 구분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의

4) 다시 말해 안보위협을 받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 위협이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헤게모니 국가에서 야기되었건, 아니면 (현상타파를 선호하는) 체제불만국가에서 야기되었건 간에 동일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만과 중국의 관계를 들 수 있는데, 중국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이용하여 대만의 독립을 저지하는 압박정책을 폈다는 것은 전형적인 ‘국가유발형’ 안보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Collins 2004, 34-35). 만약 중국의 의도가 현상유지를 넘어 대만을 군사적으로 정복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날 경우에는 더 이상 ‘딜레마’의 상황이라 아니라 ‘억지(deterrence)’의 구도가 될 것이다.

딜레마는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하지만 체제불만국가들에 의해 야기되는 적대적 행위는 더 이상 공격과 방어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며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라는 전통 안보딜레마의 핵심요소를 완전하게 벗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딜레마의 속성이 희석된 ‘느슨한(loose) 안보딜레마’로 규정하고 있다(Roe 2001, 109-110). 말하자면 ‘탐욕(greed)’에 의해 빚어지는 국가들 사이의 안보문제를 더 이상 ‘안보딜레마’로 규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탐욕스러운 국가들에 의해 빚어지는 안보불안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까? 이와 관련하여 저비스가 일찍이 제기했던 ‘억지모형’과 ‘상승작용모형’의 구분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상승작용모형에서는 동일한 성향을 지닌 두 나라가 서로의 오해와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안보불안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안보딜레마가 야기된다. 하지만 억지모형에서는 한 나라가 공격적 또는 팽창지향적인 반면 다른 나라는 이에 대해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딜레마라고 볼 수 없으며, 단순한 ‘안보문제(security problem)’라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안보딜레마’에서는 두 나라가 모두 ‘안보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안보문제’에서는 적어도 한 나라가 ‘권력추구’의 성향을 보인다. 이러한 구분은 안보딜레마의 개념이 왜 국제정치이론에서 그동안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는가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출발점이 된다. 합리적이고 선한 의도를 가진 행위자들 사이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불행한 결과를 야기하는 이율배반적 메커니즘을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5) 앞서 언급했듯이 국가의 목표를 ‘생존’으로 보는가, 아니면 ‘권력 극대화’로 보는가에 따라 이러한 구분이 가능해진다. 전통적인 안보딜레마의 논의에서는 전자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개념의 폭이 좁았던 반면, 최근의 확대된 안보딜레마 논의에서는 이와 같은 정교한 측면들이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

3. 탈냉전기의 안보딜레마: 국내정치와 동맹

안보딜레마 개념이 점차 세련된 형태로 발전되면서, 대외적 측면뿐 아니라 국내적 측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도 개념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졌다. 이러한 분위기는 냉전체제가 무너지면서 안보개념의 대상과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코펜하겐학과(Copenhagen School)는 일찌감치 탈냉전기 안보담론을 이끌어오면서 새로운 시각에서 안보이론을 정립해왔다. 전통적인 안보이론과 달리 코펜하겐학파는 탈냉전기의 안보관념이 국가중심 시각에서 벗어나 초국가기구와 국가 하부단위체 등 다양한 행위자를 포괄하며, 또한 군사안보라는 좁은 프레임워크를 넘어서 경제·사회·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보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왔다(Buzan 1991, 25-28). 이러한 새로운 안보관념은 상황에 따라 사회적인 담론과 합의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데, 이런 과정을 ‘안보문제화(securitization)’라고 부른다(Buzan *et al.* 1998, 23-33). 코펜하겐 학파의 확대된 안보개념은 오늘날 탈냉전기 안보담론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⁶⁾

이와 같은 안보담론의 확대는 안보딜레마의 개념이 적용되는 범위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특히 약소국가의 안보불안이 비같은로부터의 위협보다는 내부문제로부터 야기된다는 점이 학계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Posen 1993, 27-29; Buzan, Jones and Little 1993). 코펜하겐 학파의 ‘사회적 안보(societal security)’ 관념에 근거한 이러한 문제의식은 곧 종족분규에 따른 국내사회적 갈등과 안보위기에 대한 연구로 이

6) ‘안보문제화’의 담론은 유럽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탈냉전기 안보개념이 비국가적, 비군사적 요소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확대되는데 따른 여러 가지 국내정치적 측면을 논의한다. 오늘날 다양한 차원에서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변수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문제화 담론은 21세기 안보딜레마의 핵심적인 배경을 형성하고 있다. Buzan(1997) 참조.

어지면서 ‘불안딜레마(insecurity dilemma)’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기도 했다(Job 1992, 11-35). 또한 약소국의 국내사회 안보딜레마를 해결한다는 명분하에 이루어지는 강대국들의 개입논리도 자유주의적 ‘가치딜레마(value dilemma)’로 설명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그동안 독립이라는 ‘소극적 자유’의 개념 대신 약소국 국내사회의 결핍과 곤경을 해소하도록 도와주겠다는 ‘적극적 자유’의 관념이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Sørensen 2007, 366-372).⁷⁾

국내사회의 안보딜레마에 대한 관심은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되어온 ‘약한 국가, 강한 사회’의 추세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Migdal 1994, 23-25). 오랫동안 국민국가는 강력한 중앙집중형 통치체제를 확립해왔지만,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그 기능과 권한은 빠르게 분산되면서 다양한 비국가 사회세력이 성장해왔기 때문이다(Strange 1999, 348-350). 이러한 변화는 안보딜레마 현상이 비단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국내정치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빚어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럴 경우 딜레마를 야기하는 주체는 국가 행위자뿐 아니라 국내의 정치 세력이나 종족집단, 테러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안보딜레마의 내부 동학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으며, 그 해결책도 과거의 단순한 모델에 비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된다.

국내사회의 안보와 관련하여 특히 종족분쟁이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데, 탈냉전기에 국지적 내전의 형태로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유형의 전쟁은 특이한 방식으로 안보딜레마를 형성한다. 제3세계권을 중심

7) 안보딜레마의 개념이 탈냉전기 취약국가(weak states)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강대국들의 군사적 개입행위가 초래하는 안보위협 속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특히 안보를 제공해야 하는 강대국들이 오히려 취약국가의 국내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가치딜레마’는 불안딜레마와 더불어 이러한 현상을 묘사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으로서, 자유주의 세계질서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

으로 근대화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국가의 통합과 발전의 미명 하에 종족 간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이 무시되기 일췌였고,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갈등을 촉발하고 분규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결국 좋은 의도에서 시도된 근대국가 수립의 과정 속에서 종족간의 불평등 및 원한관계가 심화되는 나쁜 결과를 동반하게 된 것이다(Glenn 1997, 54-59; Kaufman 1996, 111-112). 한 종족이 더 많은 수혜를 누리게 되면서 다른 종족이 상대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국내사회의 안보딜레마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국가 내부의 현상이라는 점만 제외하곤 전통적인 안보딜레마의 비극과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안보딜레마가 적대적인 국가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주강들도 제기되기 시작했다. 글렌 스나이더(Glenn Snyder)는 동맹 내부의 안보문제 역시 민감한 딜레마의 구조를 띠고 있다고 보았는데, 그에 따르면 군사동맹의 일 구성원은 항상 동맹국가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원치 않는 전쟁에 끌려들어갈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전자의 경우는 '방치(abandonment)' 현상으로, 후자의 경우는 '역임(entrapment)' 현상으로 구분되는데, 두 가지 모두 한 나라의 안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국가든지 이를 회피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하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한 가지 위험을 회피할 경우 다른 쪽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 안보딜레마가 적대(adversary)관계에 있는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면, 스나이더의 개념은 '동맹(alliance) 안보딜레마'에 주안점을 둔다. 결국 어떤 국가든지 동맹을 체결하고 있다면 적국과의 안보관계 및 동맹국과의 안보관계를 동시에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는 '복합(composite) 안보딜레마'라는 개념을 제시한다(Snyder 1984, 477-479; Snyder 1997).⁸⁾

8) 양국화 시기에는 방치의 위험이 작았기 때문에 딜레마가 그리 심각하지 않았고 따라서 '적

유사한 맥락에서 크리스텐슨(Thomas Christensen)과 스나이더(Jack Snyder)의 연구도 다극화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동맹국 간의 갈등 및 안보딜레마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들은 신현실주의의 구조적 이론에 대항하여 다극화 세계가 대단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로 국가 차원의 ‘함께 엮기(chain-ganging)’와 ‘부담 전가하기(buck-passing)’라는 두 가지 행태를 꼽는다. 첫 번째 현상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세력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동맹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일컬으며, 두 번째 현상은 헤게모니의 부상을 견제하는데 소모되는 비용을 제3자에게 전가하려는 행태를 말한다. ‘함께 엮기’ 현상은 공격의 이익이 클 경우에, ‘부담 전가하기’는 방어의 이익이 클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전략인데, 이러한 이익은 대부분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결정된다(Christensen and Snyder 1990, 144-147).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공격적인 인식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방어적인 인식이 지배함으로써 각각 ‘함께 엮기’와 ‘부담 전가하기’의 특징이 나타났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⁹⁾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보딜레마의 개념은 탈냉전기에 들어와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안보환경의 제 측면들을 담아내는데 활용되어왔다. 무엇보다도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가 내부의 모습도 담아내려는 노력들이 있었으며, 특히 적대적이지 않은 국가들 사이에 나

대관계 안보딜레마가 지배적으로 나타났던 반면, 냉전이 종식된 이후의 다극화 시기에는 동맹국에 의한 방치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동맹 안보딜레마’가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 스나이더의 주장인데, 이러한 모형은 20세기에 겪었던 갈등과 분쟁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안보딜레마 이론을 더욱 세련된 형태로 발전시키고 있다.

9) 크리스텐슨과 스나이더의 연구는 안보딜레마의 구조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동맹 내부에서 나타나는 행태들을 유형화함으로써 이론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국제정치 구조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와 불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동맹국 사이의 안보협력 패턴이 달라진다는 설명은 안보딜레마의 내부 다이내믹스가 초기 이론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다는 점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타나는 심리적·구조적 딜레마 구조를 밝혀내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탈냉전기의 안보딜레마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고자 한다. 왜냐하면 탈냉전기의 안보환경을 진단하는데 있어 ‘네트워크’라는 구조적 특성을 배제해서는 그 본질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를 고려한 안보딜레마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신(新)안보딜레마’라는 새로운 개념을 동원하여 기왕의 탈냉전기 안보딜레마 개념과 차별화하고자 한다.

III. 국제정치의 네트워크 구조와 신(新)안보딜레마

1. 국제정치의 네트워크 구조와 변화

이상에서 논의한 안보딜레마 논의는 대부분 20세기 중반 이후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안보환경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의 국제정치는 급속하게 바뀌기 시작했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패러다임을 넘어 구성주의 시각 등 여러 대안이론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군사력과 경제력 등 하드파워에만 치중해오던 권력관계의 분석에 문화적 변수를 고려한 소프트파워의 개념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최근 눈길을 끌고 있는 중요한 개념의 하나로서 ‘네트워크’를 꼽을 수 있다. 네트워크 개념은 본래 자연과학에서 유래했지만 사회과학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개체들 사이의

복잡한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는데 유용한 도구이다. 국제정치의 여러 분야 중에서는 국제금융이나 무역, 환경 분야가 네트워크 관념을 통해 이해하기 좋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Smith and White 1992, 859-860; Uzzi 1999; Ward 2006). 또한 국제정치의 여러 수준에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으로부터 어떻게 불균등 관계가 형성되는가를 묘사하는 데에도 네트워크 시각이 도움을 준다(Kick and Davis 2001, 1561-1564).

이렇게 볼 때 탈냉전기의 안보환경 역시 하나의 복잡한 네트워크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001년의 9·11 사태 이후 초미의 관심사로 자리 잡아온 테러행위는 과거의 국제정치이론에서 큰 비중을 갖지 못했다. 하지만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이러한 테러행위로 커다란 충격에 흔들리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어떻게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그리고 단기간 내에 은밀한 방법으로 그토록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었는가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것이다(Stohl and Stohl 2003, 94-98; Sageman 2004). 근대국가 중심의 전통적인 시각으로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웠는데, 이는 테러행위가 소규모 단위체들 사이의 분산형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Matthew and Shambaugh 2005, 617-618). 한편 ‘테러와의 전쟁’과 같은 미국의 대응전략도 빠른 속도로 네트워크 구조를 채택하기 시작했으며, 기동전의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군사전략의 구상에 있어서도 네트워크 프레임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Deibert and Stein 2002, 8-9). 또한 ‘네트전(netwar)’이라는 표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쟁의 양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네트워크 구조를 기반으로 한 군사전략이 제시되고 있다(Nan 2008, 114-115; Aquilla and Ronfeldt 2005).

이와 같이 탈냉전기와 21세기의 새로운 국제정치체제는 시스템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복잡한 방식으로 연결함으로써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¹⁰⁾ 즉 전통적인 국가 중심의 당구공 모델로는 다루기 어려운 복잡한 연결망에 집중함으로써 이러한 구조적 특징이 국제정치라는 거시현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잘 설명해준다.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는 ‘복잡한 상호의존(complex interdependence)’으로 인하여 협력이 손쉽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갈등관계가 더 부각되기도 한다.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 속에서 협력관계는 순식간에 갈등구조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네트워크 개념은 글로벌 차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집단적인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데, 예를 들어 199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반(反)세계화의 움직임은 출발 단계에서부터 분산형 네트워크 구조를 염두에 두고 시작된 것이었다. 이러한 글로벌 사회운동은 세계화 이후의 국제정치를 규범적 차원에서 ‘글로벌 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 또는 ‘네트워크화된 지구(network globality)’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국제정치의 단면을 이루고 있다(Chesters 2004, 327-329; Axford 2004, 252-254).

한편 국제정치이론의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되어온 ‘권력(power)’의 개념도 이런 맥락에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행위자들이 밀접하게 연관된 구조적 조건 하에서는 권력이 더 이상 개별 단위체의 ‘속성’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권력은 단위체들 사이에서 ‘사회적 권력(social power)’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현상은 강대국이

10) 이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개념은 과거의 ‘국제체제(international system)’ 또는 ‘국제사회(international society)’ 개념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오늘날 국제정치의 속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된다. 특히 국가 이외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다양한 이슈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전통적인 주권과 국경관념을 넘나드는 복잡한 상호작용의 행태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안보문제 역시 이러한 국제정치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신(新)안보딜레마’의 개념은 이와 같은 ‘네트워크 국제정치’의 시각을 따르고 있다.

아니면서도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¹¹⁾ 이러한 변화를 잘 반영하는 개념 중의 하나가 ‘소프트파워(soft power)’이다(Nye 2004, 30-39).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상대방을 움직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최근에는 하드파워와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 국력을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스마트파워(smart power)’의 개념으로 거듭나고 있다(Nye 2008, 55-59).

이와 같이 점차 증가해가는 글로벌 연계는 기존 권력의 속성을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종류의 권력을 만들어낸다. 특히 ‘네트워크 권력(network power)’은 물리적 힘보다도 연결망 속에서 구현되는 ‘관계’의 힘으로서 국제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Grewal 2008, 17-21). 평상시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힘은 오늘날 테러행위, 국제표준 설정, 글로벌 사회운동, 분산형 군사전략 등에서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표준을 설정하는 행위는 사회적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를 추구하는데, 많은 수가 참여할수록 그 가치가 커지는 반면 자유로운 대안의 선택이 줄어들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처럼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폭을 줄임으로써 강압적으로 현재의 표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권력’은 새로운 종류의 권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Grewal 2005, 131-134).

국제정치의 대표적인 행위자로 간주되어온 국민국가(nation-states)도 네트워크 형태로 스스로의 모습을 바꾸어가고 있다. 오늘날 세계화의

11) 한편 물리적 권력만으로는 더 이상 상대방을 움직이기 쉽지 않다는 사실은 오늘날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이나 이라크 전쟁의 사례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좀 더 세밀하게 밝혀내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시각에 더하여 네트워크적·사회적 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물결 속에서 국민국가의 기능과 권한이 약해지고 머지않아 소멸하고 말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권한과 역할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언뜻 보기에 모순적인 현상은 국민국가의 ‘변환(transformation)’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국민국가는 과거와 같은 하향식 위계질서의 구조 속에서 일방적으로 통치하기보다 다양한 수준의 초국가적·하위국가적 행위자들과 주권을 공유하는 분산형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국가(network state)’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유럽연합을 꼽을 수 있는데, 이것은 오랜 준비를 거쳐 초국가 수준, 개별 국가 수준, 그리고 국가 하위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복합질서(heterarchy)를 구축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현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만들어가고 있다(Castells 2000, 445; Ansell 2000, 307-308).¹²⁾

이와 같은 국가 형태의 변환과 더불어, 오늘날의 국가는 다양한 영역에서 ‘정부간 네트워크(intergovernmental networks)’를 구축하면서 대외적인 연결망을 강화해가고 있다. 이제 국제체제는 더 이상 단일 국가들만의 체제라고 간주하기 어려운 정도로 복잡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한 국가의 행정·입법·사법 등 다양한 기구들이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외적 연계망을 형성하는 ‘분산형 국가(disaggregated state)’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Slaughter 2004, 8-15). 정부간 네트워크는 국제기구나 행정협정, 기타 제도를 통해 정보의 공유, 정책 집행과 조절 등을 수행하면서 분산형 국가의 면모를 다듬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간 공조를 포함하여 다양한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분산형 국가의 핵

12) 네트워크는 그 형태에 따라 수평네트워크와 수직네트워크로 구분할 수 있다. 극단적인 형태의 수직 네트워크는 일대다(一對多)의 전형적인 위계질서(hierarchy) 모형과 동일하다. 이 논문에서 언급하는 ‘복합질서’는 수평·수직 네트워크가 합쳐진 다대다(多對多)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의미한다(Ansell 2000, 311).

심 요소를 구성하며, 그로부터 ‘초정부주의(transgovernmentalism)’라는 국제정치의 새로운 양상이 구현된다(Raustiala 2002, 5-7). 이처럼 오늘날의 국제정치가 ‘네트워크’의 특성을 띠게 되면서 전통적인 안보딜레마의 속성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것일까?

2. 네트워크 시대의 신(新)안보딜레마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제정치의 여러 측면에서 ‘네트워크’적 요소가 정착되면서 구조적 차원에서 여러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현상 중의 하나가 바로 ‘불확실성’의 증가이다. 냉전기의 안정적인 양극화 구조가 무너지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 특히 다양한 행위자군(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통해 복잡하게 연결되면서 행위의 의도를 파악하고 결과를 가늠하기가 점점 곤란해지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의 탈냉전기 경험은 이와 같은 불확실성의 수준을 더욱 높여왔다. 이제 국제정치를 이해하는데 있어 전통적인 국민국가 중심의 패러다임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으며, 한층 더 복잡적이면서 정교한 이론적 프레임워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필요성은 안보문제에서도 그대로 노정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 국제정치에서 안보딜레마의 속성도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안보를 위협하는 ‘적(敵)’의 개념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고 그 범위도 군사적 분쟁과 같은 상위정치(high politics)에 국한되어 있던 냉전기와 달리 오늘날에는 안보딜레마의 주체와 영역, 나아가 속성까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국가 이외에도 다양한 행위자(또는 주체)들이 국제정치의 여러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자들 사이에 수직적·수평적으로 복잡한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우리

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목격하게 된다. 행위자들의 적대관계는 과거와 같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며, 어느 순간 예상치 못했던 방향에서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온다.

이와 같은 현상은 네트워크 구조가 지닌 고유한 속성으로부터 연유한다. 네트워크 구조는 연결망의 밀도가 강해질수록 ‘의도하지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가 일어날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전통적인 안보딜레마에서는 상호 작용하는 두 행위자가 서로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적으로 존재하지만, ‘다대다(多對多)’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네트워크 속에서는 잠재적인 위협의 원천을 근원적으로 가늠하기 어렵다. 국제정치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예전의 동맹국가가 오늘날의 적이 되는 경우가 냉전기에 비해 훨씬 더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국제정치 속에서는 행위자 A의 좋은 의도가 행위자 B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행위자 C, D, E 등 서로 연결된 다른 행위자들에게도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이 모두 원래 의도했던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딜레마’ 현상은 항상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원래의 의도와 정반대의 효과를 낼 가능성은 전통적인 안보딜레마의 양자적(dyadic) 관계에 비해 훨씬 더 커지게 된다.

네트워크 국제정치에서는 이와 같은 부수효과 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영향이 증폭된다. 이것은 국가를 포함하여 국제기구, 지역 클러스터, 국가 내부의 전투집단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안보를 규정하는 요인들이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환경에서는 어떤 일방적 행위도 복합적인 효과를 가져오며, ‘선의’에 의해 이루어진 행동조차도 그 영향을 받는 다수의 행위자들에 의해 ‘악의’로 해석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악순환을 낳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안보딜레

마와 네트워크상의 신안보딜레마 사이에 나타나는 가장 큰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 속에서 한 행위자의 움직임은 항상 다른 행위자의 반응을 촉발시키며, 이로 인한 일련의 연쇄반응(chain reactions)이 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또한 ‘안보’를 규정하는 분야가 군사적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 에너지, 식량, 보건 등 수많은 영역에서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공존하면서 ‘딜레마’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횡수와 강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연쇄반응은 전통적인 안보딜레마와 같이 단순한 순환구조를 띠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행위자들의 관계 속에서 피드백을 통해 증폭됨으로써 딜레마의 규모와 속성을 더욱 크고 복잡하게 만든다. 여기에서 우리는 전통적인 ‘안보딜레마’의 본질적 의미와 적용가능성에 대해 재검토를 할 필요를 느끼게 되는데, ‘신(新)안보딜레마(new security dilemma)’는 바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인 것이다.

신안보딜레마 개념은 본래 필립 쉰니(Philip Cerny)에 의해 고안되었는데, 국제 및 안보관계에서 재화의 ‘분할가능성(divisibility)’이 커지면서 국가들 사이에 협력관계를 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 즉 협력보다는 배신을, 평화보다는 갈등을 지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안보딜레마를 야기하는 불확실성과 판단착오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Cerny 2000, 626-628).¹³⁾ 이러한 진단은 오늘날의 국제정치가 정형화된 구조를 갖지

13) 집단행동의 논리에 따르면, 재화의 분리가능성이 커질 경우에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신자유주의적 합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계질서가 불필요하다. 따라서 시스템은 다원적·자율규제적 형태를 지향하거나 불안정한 원심력을 띠게 된다. 시스템 이탈의 유혹이 낮을 경우에는 전자의 모습이, 높을 경우에는 후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에 비해 재화의 분리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이탈이 일어날 경우 시스템 전체의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향식·권위주의적 리더십이 만들어지곤 한다(Cerny 2000, 626).

못한 채 복잡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태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이런 상태 속에서 국가 등 행위자들은 전통적인 안보딜레마의 경우와 달리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안보딜레마 이론에서 언급되었던 '구조' 및 '심리' 변수가 모두 작동하지만, 특히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재화의 분할가능성이 커진다면 구조 및 심리 변수의 역기능적 측면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신안보딜레마는 이런 점에서 전통적인 안보딜레마의 심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신안보딜레마가 작동하는 네트워크 국제정치에서는 전통적인 국민국가의 표준을 넘어 권력이 다방면으로 분산되는 '신중세주의(neo-medievalism)'의 모습이 자주 관찰된다(Bull 1977, 245-247; Friedrichs 2001, 483-486). 신중세주의란 다양한 행위자들이 공존하지만 특정한 행위자가 독점적으로 권력을 장악하지 못한 채 분산형 지배구조를 띠는 시스템의 속성을 가리킨다. 오늘날 글로벌 차원의 행위자들이 서로 얽혀 상호작용하면서 전통적인 국가행위자의 국경과 관할권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 모습 역시 신중세주의로 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중세주의적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의 문제들을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거버넌스를 보장할 수 없으며, 전통적인 국가조차도 '공동화(hollowing-out)'됨으로써 '민주주의의 결핍(democratic deficit)'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국가가 채워주지 못하는 새롭고 유동적인 공간들이 늘어나고 위계질서적인 통치구조가 무너지면서 '다가올 무정부상태(coming anarchy)'에 대한 두려움도 가속화된다(Kaplan 2000). 따라서 신중세주의적인 오늘날 국제정치는 과거의 안보딜레마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불안정한 '신안보딜레마'에 취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신안보딜레마는 이와 같은 현상의 이면에 잠재해 있는 안보문제의 근본 속성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대변하는 개념이다. 신중세적인 무정

부 상황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기보다는 ‘지속적인 무질서(durable disorder)’가 이어지고, 여기에 더해 재화의 분리가 가능성이 심화되면서 다원적이고 복잡한 네트워크 국제정치가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이 안보딜레마의 문제가 단순한 ‘심리적 메커니즘’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네트워크 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느끼게 되는 위협의 수준은 항상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증폭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사회적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나 취약국가들이 지닌 취약성은 더욱 증가하면서 ‘안보결핍(security deficit)’ 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통적인 안보딜레마에서는 핵무기나 강대국의 영향력이 강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해법 자체도 세력균형이나 국제레짐 등 ‘위로부터의(from above)’ 방식에 치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신중세주의 또는 네트워크 국제정치에서는 내전, 종족분규, 테러 등 ‘아래로부터의(from below)’ 갈등 양상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Cerny 2005, 18-20).¹⁴⁾ 따라서 냉전기에 만들어진 전통적인 안보딜레마의 개념만으로는 오늘날의 안보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한편 네트워크 국제정치에서 관찰할 수 있는 신안보딜레마는 개별 행위자들의 ‘이탈(exit)’ 또는 ‘배신(defect)’ 가능성을 훨씬 높여준다. 네트워크 국제정치는 냉전기의 고착화된 위계질서 모형에서 벗어나 수평적·수직적·다층적으로 얽힌 다중 연결망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에서는 ‘국제’의 측면보다 ‘관계’의 측면이 더 중시되며, 과거에 국가 중심으로 운영

14) 이런 상황에서 안보딜레마의 해결모형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적어도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안보딜레마 개념의 외연을 확대하고 국제정치이론에서 차지하는 의미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오늘날의 안보상황은 코펜하겐 학파의 진단처럼 광범위하고도 복잡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Buzan(1991) 참조.

되어온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행위자들이 복합적인 연대를 형성하면서 사안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동적(dynamic) 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과거의 안보딜레마 개념에서는 단지 상대국과의 '심리적'인 안보불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오늘날의 네트워크 국제정치 속에서는 이러한 요소가 다방면에 걸쳐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우선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이 안보 관련 이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정한 사안에 대해 불만이 생길 경우 초국가기구나 기업, NGO, 기타 제3의 기관과 공조할 수 있는 기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국가에 대한 전통적인 '순종의 미덕'이 사라진지 오래이다. 개인이나 기업은 이제 정부 또는 국가에 대항하여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국가가 '생존'에 관련된 결정권을 독점하던 과거에 비해 네트워크 국제정치 속에서 이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넓어지고 있다(Cerny 2000, 630; Ehrhart and Schnabel 2004, 7-12).

이러한 현상이 분명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네트워크 시대의 국제정치 속에서는 개인 또는 집단의 '정체성(identity)' 또는 문화적 요인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딜레마의 속성이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과거의 안보딜레마는 물리적 차원에서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서 야기된 것이지만, 오늘날의 신안보딜레마는 사람들 또는 집단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어떻게 자리매김 하는가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제는 국가가 발 벗고 나서서 생존을 보장해주기도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안보'의 충분조건이 달성된 것은 결코 아니다. 무엇보다도 국가 내부와 외부에 걸쳐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 시대에 정보와 이동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문화적 정체성의 요소는 약화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

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더욱 갈구하며, 물리적 측면의 생존과 더불어 문화적 측면의 정체성을 더욱 원하게 된다. 따라서 '정체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딜레마가 발생할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물리적 생존의 조건이 충족되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정체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보다 분명한 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스스로 안보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⁵⁾ 이러한 논의들은 탈냉전기의 신안보딜레마가 전통적인 안보딜레마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고 불안정하며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특징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네트워크 시대의 신안보딜레마는 오늘날 국제정치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 해결책과 관련하여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

IV. 안보딜레마의 해소와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함의

안보딜레마는 그동안 국제정치의 복잡한 모습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개념으로 간주되어왔으며, 특히 냉전기의 갈등구조를 설명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탈냉전기의 새로운 분쟁과 갈등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외연의 확대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안보딜레마 현상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분석 뿐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도 계속되어왔는데, 이는 곧 국제정치의 모순적이고도 난해한 속성을 극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이 개념은 단순한 이론적 상상의

15) 제니퍼 미첸(Jennifer Mitzen)이 '존재론적(ontological) 안보딜레마'라고 부르고 있는 이러한 요소들 역시 네트워크 시대의 신안보딜레마를 낳는 핵심 변수라고 할 수 있다 (Mitzen 2006, 344-346).

산물이 아니라 국제정치의 처절한 경험을 반영하고 그로부터 생존의 메커니즘을 탐색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었다. 그래서 1950년대에 이 개념을 제시했던 헤르츠는 안보딜레마를 완화하기 위한 자신의 접근방법을 ‘현실주의적 이상주의(realist idealism)’라고 불렀다. 냉전 초기의 긴장된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부득이 현실주의적 입장을 취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극적 현실에 안주할 수 없는 지식인의 고뇌가 그와 같은 복합적인 입장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다(Herz 1950, 178).¹⁶⁾

한편 안보딜레마가 ‘구조적 변수’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보는 학자들은 그 해결모형도 마찬가지로 구조적 차원에서 찾았다. 부잔(Barry Buzan)의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무정부상태가 과거와 달리 점차 안정적으로 바뀌어감으로써 ‘성숙한 무정부상태(mature anarchy)’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보딜레마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Buzan 1991). 특히 성숙한 무정부상태에서는 과거에 도이치(Karl Deutsch)가 언급했던 공동체의 구현도 가능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Deutsch 1953). 저비스도 안보딜레마의 해결을 위해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무엇보다 공격과 방어의 구분(differentiation) 및 양자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래야만 심리적인 불안의 악순환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⁷⁾ 하지만 저비스의 이러한 해결모형이 실제로 안보딜레마의 해

16) 헤르츠는 조지 케난(George Kennan)과 같이 현실에 기반을 둔 이상주의적 접근, 즉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면서 동시에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제3의 방법으로서 ‘현실주의적 이상주의’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그의 안보딜레마 해결모형은 ‘비(非)유토피아적 이상주의(non-utopian idealism)’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Herz 2003; Booth 1991, 527-528).

17) 예를 들어 서로 간의 협력행위에 대한 보상과 배신행위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신뢰를 형성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과거의 유럽협조체제(Concert of Europe)나 세력균형체제(Balance of Power), 그리고 냉전체제에서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들은 모두 안보딜레마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s)’의 사례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Jervis 1978; Jervis 1983).

결에 직접 도움을 주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의 논의는 헤르츠나 신현실주의자들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구조적인 측면에 기울어져 있었고, 또한 강대국 중심의 사고방식을 넘어서지 못함으로써 탈냉전기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분쟁에 적용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선두에 서 있는 웬트(Alexander Wendt)도 이러한 현실주의의 구조적 관점에 동조하면서 안보딜레마의 해결모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의 구성주의 시각에서는 무정부상태리는 국제정치의 구조적 특징이 국가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자구노력(self-help)이나 권력정치(power politics) 역시 제도로서 인식된다. 또한 국가는 반복되는 상호작용을 통해 상대국이 느끼는 안보불안을 알게 되고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안보딜레마가 인간행동의 고유한 속성이기보다 심리적인 것으로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Wendt 1999, 362-363). 결국 자유주의 이론가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상호작용을 통한 규범(norms)의 수립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의도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안보딜레마의 가장 난해한 요인인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론적 담론의 차원을 넘어 실천적 맥락에서 안보딜레마의 해소를 위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보딜레마의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세계 여러 지역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제안들도 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 국가가 자신의 선의를 먼저 드러냄으로써 상대국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딜레마 구조에서 벗어나도록 유인하는 ‘설득(reassurance)’ 전략이 안보딜레마의 해결모형으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원래 냉전기 핵전략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구조적 해결방법의 한계를 인식한 일군의 학자들이 안보딜레마의 진정한

해결은 결국 적어도 한쪽의 일방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즉 저비스나 웬트류의 해결모형인 ‘규범’이나 ‘제도’가 등장하기 전에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주도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예로 ‘긴장완화를 위한 호혜유도전략 (Graduated Reciprocation in Tension Reduction)’ 해법은 1960년대에 오스굿(Charles Osgood)이 제시한 바 있는데, 이것은 안보딜레마에 빠진 국가들 사이에 호혜성과 상호확증(shared commitment)을 달성하기 위한 선제조치의 모형으로서 제시된 것이었다(Osgood 1962).¹⁸⁾

호혜유도전략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신호(signaling) 이론’을 현실정치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퍼즐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들 사이에 안보딜레마에 빠지지 않기 위한 실질적 커뮤니케이션은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담은 ‘신호’를 올바르게 전송하고 해석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는 서로 신뢰하기 어려운 상호작용 게임의 행위자들 사이에 어떻게 협력의 단초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집단행동의 딜레마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런 점에서 일방적인 군비제한 등의 방법은 여타의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적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조치로 주목을 받고 있다(Morrow 1992, 166-167; Fearon 1994, 236-239; Kydd 1997, 373-374). 이런 점에서 선의의 ‘신호’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는 입장은 양방향 다이내믹스를 강조하는 저비스의 ‘방어적 현실주의’와 일맥상통한다. 군사력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해결하는데 ‘설득(reassurance)’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방적인 선제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냉전기를 포함한 수십 년간의 갈등구조 속에서 이러한 방어적

18) 사실상 냉전체제의 종식도 소련 지도자였던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가 이러한 일방적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이다(Collins 1998; Walsh 2007).

현실주의 전략이 실제로 사용 가능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냉전기 고르바초프의 사례를 제외하곤 국가가 스스로 자신의 의도를 상대방에게 먼저 드러내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일방적인 설득전략이 딜레마의 해결에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지적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선의의 국가가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격적 군사력을 줄여야만 하는데, 공격능력과 방어능력의 구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것이 스스로의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¹⁹⁾ 그렇지만 그동안 냉전 및 탈냉전기를 거치면서 ‘심리적’ 관계에만 치중해오던 안보딜레마의 인식을 넘어 실현 가능한 해법을 탐구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탈냉전기의 절실한 과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선제적 전략은 탈냉전기의 안보딜레마 구조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할 수 있다.

V. 맺는 말

오늘날 세계정치는 탈냉전 시대를 거쳐 네트워크 구조가 복잡하게 전개되는 21세기로 접어들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국제정치 상황에서 안보딜레마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그로부터 적절한 시사점을 도출해내려는 문

19) 여기에 더하여 동맹 내부의 관계 및 비대칭 안보딜레마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 단순한 신호의 전달만으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즉 나쁜 의도를 가진 국가에 이러한 선의가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선의의 국가는 상대방이 분명하게 선의를 가진 경우에만 자신의 의도를 드러낼 것이다. 또 공격능력과 방어능력의 구분이 가능하더라도 자신의 의도를 먼저 드러내는 쪽이 협상에서 불리하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Montgomery 2006, 155-167).

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 20세기의 안보딜레마 개념을 전반적으로 훑어보았고, 특히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안보개념이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가를 짚어보았다. 냉전기의 안보가 철저하게 국민국가 중심의 군사 전략적 관점에서 다루어졌다면, 탈냉전기의 안보환경은 보다 다양해진 행위자와 사회적 영역에 걸쳐 안보딜레마의 상황이 폭넓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냉전시대에 구축된 안보딜레마의 관념이 1990년대에 들어와 어떻게 바뀌어왔는가를 살펴보았는데, 안보대상과 영역의 확대를 ‘안보문제화’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강조한 코펜하겐학파의 안보이론은 중요한 분수령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상황에 대한 이해는 21세기의 위협과 안보 인식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형성되는 동적인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이 논문에서는 9·11 사태 이후의 복잡한 세계정세와 안보환경이 전통적인 안보딜레마 개념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복합적이면서 비정형화된 위협과 갈등이 중요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국가 중심의 발상만으로 이러한 새로운 안보딜레마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결국 탈냉전기 안보개념의 확대를 넘어서 이 논문에서는 보다 본질적인 국제정치의 변환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선 구조적 관점에서 네트워크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양적인 변화 뿐 아니라 질적인 행태의 변화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국제정치 프레임워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전통적인 안보상황을 바탕으로 전개되어온 안보딜레마 개념이 보다 복잡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안보딜레마’의 개념을 통해 재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탈냉전기 국제정치의 변화는 세계 여러 지역의 안보상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냉전기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의 급속한 변화는 글로벌 차

원의 안보딜레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을 보이면서 더욱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국제정치의 상호작용이 전통적인 안보딜레마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새로운 안보위협 속성을 만들어낸다고 보고, 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신(新)안보딜레마’를 제시하였다. 1950년대 핵대결과 양극화의 구도 속에서 전통적인 ‘안보딜레마’가 국제정치의 고유한 속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국제정치이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논문에서는 탈냉전기 네트워크 국제정치의 구조 속에서 이와 같은 안보딜레마가 행위자와 위협 차원에서 더욱 심화되면서 ‘신안보딜레마’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을 제시함으로써 21세기의 새로운 국제정치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다소나마 기여하고자 하였다.

투고일: 2012년 3월 14일

심사일: 2012년 3월 20일

게재확정일: 2012년 4월 12일

참고문헌

- Acharya, Sukanta. 2007. "Security Dilemma in Asia," *International Studies* 44(1), 57-72.
- Alexeev, Mikhail A. 2011. "Societal Security, the Security Dilemma, and Extreme Anti-Migrant Hostility in Russia," *Journal of Peace Research* 48(4), 509-523.
- Ansell, Christopher K. 2000. "The Networked Polity: Regional Development in Western Europe," *Governance* 13(3), 303-333.
- Aquilla, John and David Ronfeldt, eds., 2005. *Networks and Netwars*. 한세희 옮김. 『네트워크 전쟁: 테러·범죄·사회적 갈등의 미래』(서울: 한울아카데미).
- Axford, Barrie. 2004. "Global Civil Society or 'Networked Globality': Beyond the Territorialist and Societalist Paradigm," *Globalizations* 1(2), 249-264.
- Booth, Ken and Nicholas Wheeler. 2007. *The Security Dilemma: Fear, Cooperation and Trust in World Politic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Bull, Hedley. 1977. *The Anarchical Society: A Study of Order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Butterfield, Herbert. 1952. *History and Human Relations*. New York: MacMillan.
- Buzan, Barry. 1991. *People, States and Fear: An Agenda for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in the Post-Cold War Era*. 2nd ed.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 Buzan, Barry. 1997. "Rethinking Security after the Cold War," *Cooperation and Conflict* 32(1), 5-28.
- Buzan, Barry, Charles Jones and Richard Little. 1993. *The Logic of Anarchy: Neorealism to Structural Re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Buzan, Barry, Ole Waever and Jaap de Wilde. 1998. *Security: A New Framework for Analysis*. Boulder: Lynne Rienner.
- Castells, Manuel. 2000. *End of Millennium*. 박행웅·이종삼 옮김. 『밀레니엄의 종언: 정보시대 경제, 사회, 문화 3』. 서울: 한울.
- Cerny, Philip. 1995. "Globalization and the Changing Logic of Collective Ac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49(4), 595-625.
- Cerny, Philip. 2000. "The New Security Dilemma: Divisibility, Defection and Disorder in the Global Era,"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6, 623-646.

- Cerny, Philip. 2003. "What Next for the State?" in Eleonore Kofman and Gillian Youngs, eds. *Globalization: Theory and Practice*, 2nd ed. (London Continuum), 207-221.
- Cerny, Philip G. 2005. "Terrorism and the New Security Dilemma." *Naval War College Review* 58(1), 11-33.
- Chesters, Graeme. 2004. "Global Complexity and Global Civil Society," *Voluntas* 15(4), 323-342.
- Christensen, Thomas J. 1999. "China, the U. S.-Japan Alliance, and the Security Dilemma in East Asia," *International Security* 23(4), 49-80.
- Christensen, Thomas J. and Jack Snyder. 1990. "Chain Gangs and Passed Bucks: Predicting Alliance Patterns in Multipolar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4(2), 137-168.
- Collins, Alan. 1998. "GRIT, Gorbachev and the End of the Cold War."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4, 201-219.
- Collins, Alan. 2000. *The Security Dilemmas of Southeast Asia*. New York: St. Martin's.
- Collins, Alan. 2004. "State-Induced Security Dilemma: Maintaining the Tragedy." *Cooperation and Conflict* 39(1), 27-44.
- Deibert, Ronald J. and Janice Gross Stein. 2002. "Hacking Networks of Terror," *Dialog-IO* 1(1), 1-14.
- Dittmer, Lowell. 2001. "South Asia's Security Dilemma." *Asian Survey* 41(6), 897-906.
- Ehrhart, Hans-Georg and Albrecht Schnabel. 2004. "Changing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Role of the Military in Post-Conflict Peacebuilding Operations." *S+F* 22, 7-12.
- Fearon, James D. 1994. "Signaling versus the Balance of Power and Interests: An Empirical Test of a Crisis Bargaining Model."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8(2), 236-269.
- Friedrichs, Jörg. 2001. "The Meaning of New Medievalism."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7(4), 475-502.
- Gleditsch, Nils Petter, Håkan Wiberg and Dan Smith. 1992. "The Nordic Countries: Peace Dividend or Security Dilemma?" *Cooperation and Conflict* 27(4), 323-347.

- Grewal, David Singh. 2005. "Network Power and Global Standardization: The Controversy over the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etaphilosophy* 36(1/2), 128-144.
- Grewal, David Singh. 2008. *Network Power: The Social Dynamics of Globaliz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Hacke, Christian and Jana Puglierin. 2007. "John H. Herz: Balancing Utopia and Reality." *International Relations* 21(3), 367-382.
- Harrison, Selig S. 2003. *Korean Endgame: A Strategy for Reunification and U. S. Disengage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ecker, Siegfried S. 2010. "Lessons Learned from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es," *Daedalus* 139, 44-56.
- Herz, John H. 1950. "Idealist Internationalism and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2(2), 157-180.
- Howorth, Jolyon. 2005. "The Euro-Atlantic Security Dilemma: France, Britain, and the ESDP." *Journal of Transatlantic Studies* 3(1), 39-54.
- Jervis, Robert. 1976.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ervis, Robert. 1978.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30(2), 167-214.
- Jervis, Robert. 1983. "Security Regimes." In Stephen D.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73-194.
- Job, Brian L. 1992. "The Insecurity Dilemma: National, Regime and State Securities in the Third World." In Brian L. Job, ed., *The Insecurity Dilemma: National Security of Third World States* (Boulder, CO: Lynne Rienner), 11-35.
- Kaufmann, Chaim. 2007. "A Security Dilemma: Ethnic Partitioning in Iraq."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Winter), 44-49.
- Kaufman, Stuart J. 1996. "Spiraling to Ethnic War: Elites, Masses, and Moscow in Moldova's Civil War." *International Security* 21(2), 108-138.
- Kydd, Andrew. 1997. "Game Theory and the Spiral Model." *World Politics* 49, 371-400.
- Matthew, Richard and George Shambaugh. 2005. "The Limits of Terrorism: A Network Perspective,"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7, 617-627.
- Messari, Nizar. 2002. "The State and Dilemmas of Security: The Middle East and

- the Balkans.” *Security Dialogue* 33(4), 415-427.
- Michishita, Narushige. 2006. “Coercing to Reconcile: North Korea’s Response to US ‘Hegemony’.”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29(6), 1015-1040.
- Migdal, Joel S. 1994. “The State in Society: An Approach to Struggles for Domination.” In Joel S. Migdal, Atul Kohli and Vivienne Shue, eds. *State Power and Social Forces: Domination and Transformation in the Third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7-34.
- Mitzen, Jennifer. 2006. “Ontological Security in World Politics: State Identity and the Security Dilemma.”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2(3), 341-370.
- Montgomery, Evan Braden. 2006. “Breaking Out of the Security Dilemma.” *International Security* 31(2), 151-185.
- Morrow, James D. 1992. “Signaling Difficulties with Linkage in Crisis Bargaining.”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6, 153-172.
- Nan, Susan Allen. 2008. “Conflict Resolution in a Network Society.” *International Negotiation* 13, 111-131.
- Nye, Joseph S. 2004. *Soft Power*. 홍수원 옮김. 『소프트파워』. 서울: 세종연구원.
- Nye, Joseph S. 2008. “Smart Power.” *Harvard Business Review* (November), 55-59.
- Osgood, Charles E. 1962. *An Alternative to War or Surrender*. Urbana, IL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Posen, Barry. 1993. “The Security Dilemma and Ethnic Conflict.” *Survival* 35(1), 27-47.
- Radtke, Kurt. 2003. “Security Dilemma, Ideological Polarization, or Cooperation Based on ‘Comprehensive Security?’” *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and Technology* 2(3-4), 499-520.
- Ralph, Jason. 1999. “Security Dilemma and the End of the Cold War.”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5, 721-725.
- Raustiala, Kal. 2002. “The Architectur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ransgovernmental Networks and the Future of International Law,”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43(1), 1-92.
- Roe, Paul. 2000. “Former Yugoslavia: The Security Dilemma That Never Wa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6(3), 373-393.
- Roe, Paul. 2001. “Actors’ Responsibility in ‘Tight’, ‘Regular’ or ‘Loose’ Security

- Dilemma." *Security Dialogue* 32(1), 103-116.
- Roe, Paul, 2002. "Misperception and Ethnic Conflict: Transylvania's Societal Security Dilemma."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8, 57-74.
- Sageman, Marc, 2004. *Understanding Terror Network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Schweller, Randall, 1994.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19(1), 72-107.
- Schweller, Randall, 1996. "Neorealism's Status-Quo Bias: What Security Dilemma?" *Security Studies* 5(3), 90-121.
- Shain, Yossi and Barry Bristman, 2002. "The Jewish Security Dilemma." *Orbis* (Winter), 47-71.
- Slaughter, Ann-Marie, 2004. *A New World Ord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mith, David A. and Douglas R. White, 1992.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Global Economy: Network Analysis of International Trade 1965-1980," *Social Forces* 70(4), 857-893.
- Snyder, Glenn H, 1984.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36(4), 461-495.
- Snyder, Glenn H, 1997. *Alliance Politic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Stohl, Cynthia and Michael Stohl, 2003. "Networks of Terror: Theoretical Assumptions and Pragmatic Consequences," *Communication Theory* 17, 93-124.
- Strange, Susan, 1999. "The Westfailure System,"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5, 345-354.
- Sylvest, Casper, 2008. "John H. Herz and the Resurrection of Classical Realism," *International Relations* 22(4), 441-455.
- Tang, Shiping, 2009. "The Security Dilemma: A Conceptual Analysis." *Security Studies* 18, 587-623.
- Uzzi, Brian, 1999. "Embeddedness in the Making of Financial Capital: How Social Relations and Networks Benefit Firms Seeking Financing,"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4(4), 481-505.
- Walsh, James Igoe, 2007. "Do States Play Signaling Games?" *Cooperation and*

- Conflict* 42(4), 441-459.
- Waltz, Kenneth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Wesley.
- Ward, Hugh, 2006. "International Linkages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e Effectiveness of the Regime Network," *Journal of Peace Research* 43(2), 149-166.
- Wendt, Alexander. 1999.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heeler, Nicholas J. 2008. "To Put Oneself into the Other Fellow's Place': John Herz, the Security Dilemma and the Nuclear Age." *International Relations* 2(4), 493-509.

The New Security Dilemma in Networked International Politics

A Theoretical Analysis

Byoung-Won Mi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deals with the puzzle of how to re-establish the concept of security dilemma and how to find appropriate implications. It reviews the historical discussion of the concept in the twentieth century. In particular, it distinguishes the notion of security in the post-Cold War period from that in the Cold War period. The latter is featured by the state-centric notion of security focused on military-strategic aspects, while the former by the emergence of diverse actors and the expansion of the notion into societal areas. The paper discusses how the concept of security dilemma has transformed itself in the 1990s since the Copenhagen School's theory of *securitization*. It also stresses a deeper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which networks have been strengthened so that they have caused a qualitative change in systemic essences. As such it introduces the concept of *new security dilemma* as an alternative and discusses its implications on global politics in the twenty-first century.

Keywords : Post-Cold War, Networked International Politics,
Copenhagen School, Security Dilemma, New Security Dilemma